

**TO MY FATHER**

아버지에게 스타일리시한
선물을 해보세요. 우린 썩
괜찮은 아들이잖아요

**BASELWORLD
2014**

올해도 어김없이 스위스
바젤을 수놓은 궁극의
시계들을 소개합니다

**WHAT
IS YOUR
SUIT?**

남자가 수트를 고르는 배경에는 직업,
직위, 경제력, 계절 등 많은 요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뭐래도 최종
결정구는 '취향'이라는 직구겠지요.
당신의 수트 취향은 어디를 향하나요?
수트 감식안에 관한 한 최고를
자부하는 <루엘>이 최상의 만족을
안겨줄 수트 선택지를 펼쳐놓습니다.
얼른 골라보세요.

**MY FANTASTIC
GARAGE LIFE**

롤스로이스 레이스,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로터스 에보라 S, 그리고 MV
아구스타 부르탈레와 BMW
모터라드 R 나인 T.
이 걸출한 오브제들의 집합

ARICHIST CITY

앤디 워홀, 피카소, 마크
로스코, 살바도르 달리, 데미언
허스트, 아니시 카푸어...
상상만으로도 유니크한
아티스트 26인의 가상 건축물

**PLAYBOY
ARCHITECTURE**

우리가 익숙하게 알던
<플레이보이>
매거진의 낯선 과거

**NEXT
BIG
THING!**

건축, 전시, 와인, 여행,
푸드, 호텔, 스포츠, 글로벌
라이프스타일 신을
흔들고 있는 가장 최신의
패러다임들

다미안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멕시코 출신의 설치미술가 다미안 오르테가는 보잘것없는 일상적 재료로 작품을 만든다. '놀이'의 상상력으로 빚어낸 흥미로운 결과물을 통해 그가 말하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에디터 양민정(프린스 에디터) 포토그래퍼 권태현



Falla, 2014

한국에선 작품을 처음 소개하는데, <Reading Landscape>라는 전시 제목의 의미가 궁금하다.

이번 전시를 위해 준비한 작품들은 지질학에서 영감을 받았다. 각기 다른 토양이 쌓여 단층을 형성한 땅의 단면과 형태에서 시간의 누적을 읽는 것. 표면뿐만 아니라 땅속에 켜켜이 쌓인 것들을 표현하고 싶었다.

신문사에 속한 풍자 만화가 출신이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전혀 다른 스케일의 설치미술가로 '점프'한 건가?

어떻게 그 자그마한 2D 작업에서 커다란 3D 작업으로 넘어왔느냐는 말인가? 글썄, 나도 어떻게 된 일인지 잘 모르겠다. 분명한 건 나 자신이 굉장히 유동적인 사람이라는 사실이다. 나를 어떤 한 가지로 규정짓지 않고, 내가 무언가를 표현하는 공간의 크기도 제약을 두지 않았다. 신문사에서 일할 때도 느낀 점이 많았다. 신문은 많은 사람이 읽고 재미있어도 하루만 지나면 한낱 폐지로 전락한다. 아는 노래 중에 이런 슬픈 가사가 있다. "나는 어제의 신문 같아...". 나는 그렇게 쌓이는 신문이 다른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작품들이 광석이나 단층, 지구와 핵 등을 닮았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깨진 유리 조각이나 영수증, 칫조각 등 대수롭지 않은 일상적 재료로 굉장히 거대한 자연 요소들을 표현했다는 게 독특하다.

나는 우리 주변의 모든 질료들이 마치 하나의 '원자'처럼 잠재력과 표현력을 지녔다고 본다. 작은 벽돌 하나가 씨앗이 돼 웅장한 건축물이 된다. 신문은 물질적으로 시간을 대표하는 사물이다. 시대를 대변하는 콘텐트의 누적이요, 그 안에는 인간의 역사와 문화가 들어 있다. 매일 나오는 신문 7개가 쌓이면 일주일이고, 내가 하루 동안 받은 영수증이 모여 그날을 구성한다. 그런 맥락에서 나는 '시간'을 담아 작업하는 것이다. 영수증과 신문을 겹겹이 문치고 덧대고 말리고 구워낸 결과물을 반으로 자르면 누적된 시간이 나이트처럼 드러난다.

작품이 정물이 아닌 행위 그 자체이기도 한 셈인가?

그렇다. 앞서 말한 재료의 잠재력을 표현하는 여러 방식을 시도하고 싶다. 예컨대 어떤 재료를 바닥에 깔아보았더니 마치 액체처럼 보였다. 그걸 모아 큐브 모양으로 쌓았더니 고체가 됐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실에 매달아 공중에 띄우니 기체를 형상화한 게 됐다. 그 작업이 재미있어서 전시를 준비하는 내내 재료들을



3



1



2

퍼트리고, 모으고, 매다는 작업을 반복한 적도 있다. 퍼포먼스란 모든 종류의 예술에서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작품을 반으로 가르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가운데를 쪼개 그 중심에 무엇이 자리하는지 드러내는 것 말이다.

작품을 만들며 가장 즐거운 순간은 언제인가?

재료를 덧대 만든 구를 처음 쪼개는 순간이다. 언제나 심장이 두근거린다. 재료들이 안에서 어떤 화학작용을 했을까, 잘 굳었을까, 녹아 흘렀을까, 예상치 못한 우연의 결과물이 탄생하는 장면이야말로 매력적이다. 그렇게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 마음에 드는 작품이 탄생한다. 이번 전시를 준비하면서 겪은 가장 흥미로운 에피소드도 우연에 의한 것이었다. 작품 재료로 쓰려고 모아둔 나무 큐브에 달이 마구 낙서를 해놓은 것이다. 처음에는 불같이 화를 냈지만, 곧이어 이것도 괜찮은데 하는 생각에 그대로 작품에 사용했다. 시간에 개입한 행위와 우연, 그것이 내 작품을 만들기 때문이다.

전시를 소개하는 메인 포스터에 등장하는 구체 작품이 보이지 않는다.

이번 전시를 위해 준비했지만 그 작품만 끝내 가져오지 못했다. 그 구체는 집에서 '키우고' 있던 것인데, 재료를 덧대는 데 재미를 붙이다 보니 어느새 문을 빠져나오지 못할 정도로 커져버렸다. 지금은 거의 내 키만 해졌다. 그것 역시 반으로 잘라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 크기에 맞는 톱이 없어 그것마저 특별 제작해야 한다는 것도 하나의 변명이다. 아무튼 선보일 날을 기대 중이다. 예술가로서 다미안 오르테가와 그렇지 않은 당신을 상상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삶은 무엇인가?

무엇이든 가지고 놀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자유가 있다는 점에서 나는 계속 실험과 창작을 하고 싶다. 하지만 만약 다음 생이 있고 내가 예술가가 아닌 길을 택한다면, 그저 무명의 삶을 살고 싶다. 외딴 마을에 살면서 작은 식당에서 별 볼 일 없는 일을 반복하고, 누구도 날 알아보지 않는 평범하고 조용한 삶.

다미안 오르테가의 개인전 <Reading Landscape>는 4월 10일부터 5월 11일까지 국제갤러리 3관에서 열립니다.

- 1 Viaje al centro de la tierra: penetrable, 2014
- 2 Geoda 3: Cebolla, 2014
- 3 Breve esquema del tiempo, 2014
- 4 Extracción 1, 2014



4